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 효율 개선제 등 지원

정읍시가 가축 사양관리와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시는 축산업 등록·허가가능 중 소규모 사육 30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상 농가에 축종별 가축면역 증진제와 사료효율 개선제 등을 지원해 면역 증진, 사료효율 향상, 생육 촉진, 장내 암모니아·유해가스 감소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원 제품은 가축에 급여 시 사료효율과 환경개선에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조달청 등록 제품이거나 국내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에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의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정읍시보건의소는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감염된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감기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한 탓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회 꼭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결핵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

정읍시, 공간계획 구상... 추진전략·기본방향 등 설정

정읍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경쟁력 향상과 스마트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도시는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교통, 기반시설, 건축, 농업,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설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다.

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정읍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공간계획을 구상 하고 추진전략과 기본방향 등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 적용 할 수 있는 스마트 시설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 시민 리빙랩 등을 추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의 스마트도시 분야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스마트도시는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경과 제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읍만의 특색있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노사민정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오전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지역 일자리 정책변화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일자리 정책변화 워크숍 개최

고창군이 노사민정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오전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지역 일자리 정책변화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협의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 노사민정 대표 및 전문가 등을 위촉지 9명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으로, 고창군의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심의하게 된다.

특히 민간위촉직의 비율을 높여 각 계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회의에선 △지역 내 노동시장 및 고용창출·인력양성 방안 △지역내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역 일자리 정책변화와 지역 주체의 과제'를 주제로 전북대 경영학과 채준호 부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8기 1년 동안의 많은 변화와 성과를 발판 삼아 고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협력의 노사문화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추진

부안군,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 계화조류지·동진강·고부천 일원 철새 서식 환경보호

부안군은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인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일원의 철새 서식 환경보호를 위한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겨울 철새에 먹이를 제공하는 등 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부안군은 매년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비 5,100만원을 포함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일원에 매년 추진해오던 보리, 밀 경작 사업에 더해 벼, 콩, 수수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예정이며 이행 확인 후 경작 면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부안군에서는 사업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열어 사업 유형, 대상 지역, 보상단가 등을 결정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공고를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겨울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보리 등의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지역의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은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인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일원의 철새 서식 환경보호를 위한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의 2021~22년 겨울 철 조류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부안군은 계화조류지, 동진강, 고부천 일원을 중심으로 황새, 흰꼬리수리 등 53종 155,284여 마리의 철새가 겨울을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창군정 이광수 안진총괄 과장은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본격 추진

고창군이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13일부터 16일까지 아산면 4개 마을과 무장면 5개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4억7300만원을 투입해 무장면 강남리부터 아산면 주진리 주진천 합류점까지 3.3km의 하천을 정비하고 9개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착공에 들어갔고, 사업구간의 작물 재배로 잠시 공사를 멈추고, 비추수 이후인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세부 설명 및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양해와 의견 수렴, 편익토지 보상 협조 등을 부탁할 예정이다.

고창군정 이광수 안진총괄 과장은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정 이광수 안진총괄 과장은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공공비축미곡 6829톤 매입... 가루쌀 첫 매입

정읍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산물벼를 시작으로 2023년산 공공비축미 6829톤을 매입한다.

매입 대상은 올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동진, 새청무, 비로미 품종이며, 매입 규모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 벼' 501톤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 벼' 5398톤(40kg 기준 9000포), '가루쌀 935톤이다. 가루쌀은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을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영원RFC를 비롯한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시설 7개소에서 산물벼를 매입한다. 건조된 가루쌀벼와 일반벼는 수확시기와 품종 혼합방지를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금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12월 31일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벼 수매 대상 품종인 신동진 새청무 품종 외에 다른 품종을 20% 이상 혼합하면 5년간 공공비축미 수매가 제한돼 출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격품인 새 포장재를 사용하고 수분 13~15% 건조 상태를 준수해 출하해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수매장은 지게차 등 위험 요소가 많으니, 수매장에서 주위를 잘 살펴보고 지게차 주변에 가지 않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that says '착한신고 112' and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It lists various types of crim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